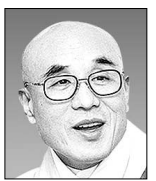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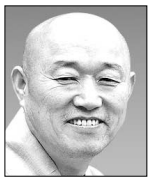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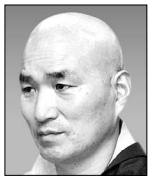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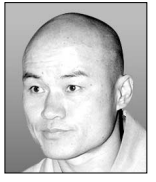
‘태고종 교육불사’ 특강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3월 8일 동방불교대 승가과 신입생 및 불교·법패·불교미술과 재학생들에게 ‘태고종의 교육불사’에 대해 특강했다.



불교TV 개국 10주년
불교텔레비전 회장 성우 스님(대구 팔공산 파계사 주지, 조계종 계단위원회 계단위원)은 3월 9일로 불교텔레비전 개국 10주년을 맞았다.



동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장에
상주 남장사 주지 성용 스님은 3월 17일 서울 중구 엠베서티호텔에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제10대 회장에 취임한다. (02737-1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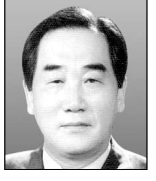
3일간 무료 공개강좌
광주불교교육원장 영호 스님은 교육원 개원 11주년을 맞아 3월 17일부터 광주불교문화대학에서 3일간 무료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062228-9098)



호스피스 연수차 대안으로
천안 정도마를 원장 능행 스님은 3월 24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대안 자제공덕회를 방문해 임종실습 등 호스피스 교육연수를 떠난다.



국민대 제8대 총장에 취임
탄허불교문화재단 김문환 이사(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3월 24일 국민대 콘서트홀에서 국민대학교 제8대 총장으로 취임한다. (02910-4171)



강릉MBC 사장에 취임
문화방송 불교연구회원 김영일 해설위원은 3월 10일 강릉MBC 제14대 사장에 취임했다. 김사장은 문화방송 국부장, 보도제작국장 등을 역임했다.



부산일보 편집국장에
부산신문장남 불교언론인회 박병곤 부회장은 3월 2일 부산일보사 편집국장으로 선임됐다. 박 국장은 2002년 통도사 부산포교원 대광불교대학을 졸업했다.



부산불교실업인회창립
부산 영광도사 김윤환 대표는 3월 17일 오후 6시 30분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제8대 부산불교실업인회 회장으로 취임한다.



서울도시철도 창사 10주년 법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범우회 이정환 회장은 3월 18일 서울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 창사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16일 취임식 가진 동국학원 이사장 현해 스님

“면학 여건 개선해 질적 향상 매진”

3월 16일 취임식을 가진 동국학원 이사장 현해 스님(사진)은 9일 교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당한 무리가 있지만 일산 불교병원이 내년 3월 개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안실 운영에 대해서는 “수익금 100%를 병원에 돌려줄 생각이지만 재단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동국대 홍기삼 총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대부분과 생각이 달라 향후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남들이 많은 돈을 냈다. 엄밀히 얘기하면 종단과 재단에서 지원해 준 것인데 회계처리하는 학교에서 지는 것으로 됐다. 재단 전입금 문제는 이러한 점을 무시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는 재단 수익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학교 수익으로 처리한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회계상 재단 수익으로 잡아나갈 계획이다. 영안실 운영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건학 100주년을 앞두고 있다. 동국대 발전을 위한 구상은 무엇인가.
“양적 팽창보다 질적 발전에 신경을 쓰겠다. 내가 학교 다닐 때(64~71년)에 비해 학생 수는 다섯 배 늘었는데 공간은 그

“일산병원 개원 최우선... 영안실 재단 직영

강의·연구 공간 확보, 재단 화합에도 앞장

—일산 불교병원은 어떻게 되나?
“개원을 위해서는 정관 개정이 필수적인데 알다시피 2월말에야 이사회를 통과했다. 내년 3월 개원은 상당히 무리가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총장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개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할 생각이다.”

—홍기삼 총장은 일산 불교병원 영안실은 학교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밝혔는데...
“충실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단에서 직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알아보니 재단에서 직영하는 대학병원도 많았다.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되 수익금은 100% 학교로 돌려주겠다.”

대르다. 이사장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연구실이 토끼집만 하더라. 이런 여건에서 좋은 교수가 올 리도 없고, 좋은 학생을 유치할 수도 없다. 공간 확보를 통해 강의실, 연구실 등을 늘리고 우수 교수와 학생 육성에 힘쓰겠다.”

—이사회 내부 갈등이 아직 치유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이 있는데.
“앞으로 그때그때 이사 스님들을 찾아보고 상담도 받고 지도도 받겠다. 이사장이라는 위치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pia.com

금강대 신입 총장 김유혁 박사

“경쟁력 있는 대학 만들기 최선”

“불교라는 전통적 기반과 한국적 특성을 가져야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대학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강대가 지역에 기반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3월 8일 제2대 금강대 총장으로 선임된 김유혁(73·사진) 박사는 “신생대학이라는 어려움을 딛고 전문성을 갖춘 일류대학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피력했다.

김유혁 신입 총장은 “학생 지원과 재학률, 취업률이 높은 대학이 되어야 한다”면서,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어야 금강대가 일류대학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또 “종립 학교의 정체성과 우수한 장학제도, 수준 높은 교수진, 알찬 커리큘럼 등 금강대만의 이점을 잘 활용한다면 어느 대학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우수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올해 9월 착공하는 폐가식과 개가식이 혼합된 1.5세대식 종합도서관 건립불사도 교육환경 갖추기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학생들의 토론과 발표, 연구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1.5세대 도서관은 금강대의 우수한 교육여건을 보여주



전문성 강화로 ‘신생대’ 극복
총립대 장점·장학제도 등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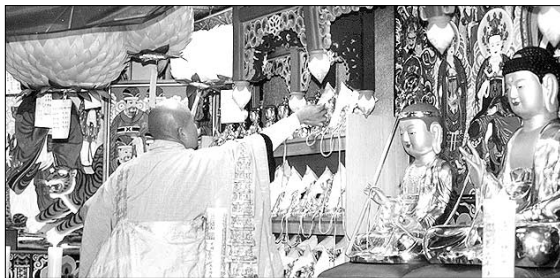
는 대표적인 공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총장은 “금강대가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훌륭한 인재 양성의 산실인 동시에 확실한 자기가치를 발견하고 참성품을 개발하는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재단과 교직원, 학생이 혼연일체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유혁 총장은 일본 와세다(早稲田)대학 도시학 박사, 중국학술원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단국대 부총장, 안중근 의사 기념관장 등을 역임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약천사 태중아기 영가 천도재 봉행



대한불교일승종 약천사(주지 자운)는 3월 7일 총무원장 혜정 스님을 증명법사로 태중아기 영가 지장보살 점안식을 봉행했다. 조상부모의 천도에 치중돼 자칫 소홀하기 쉬운 태중아기(낙태, 유산) 영가를 위해 마련된 이번 천도재에서 자운 스님은 “이런 법회가 계속돼 생명경시와 낙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23391-8523)

광주 동부경찰서 불자회 창립



광주 동부경찰서 불자회(회장 이승언)가 3월 10일 무등산 해동사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창립법회에는 미타종 부총장 해우 스님, 서부경찰서 불자회 김창대 회장을 비롯 동부경찰서 회원 13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해우 스님은 법어에서 “항상 자신을 낮추고 보시 바라심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진각복지재단 ‘황석영 초청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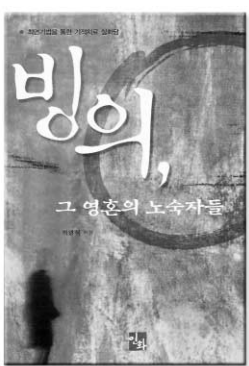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효암)은 법인설립 6주년을 맞아 3월 5일 진각종 총인원내 강당에서 재단 상임이사 해인 정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석영 선생 특별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황석영 씨는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상황과 시대적 변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양불교대 제5기 입학식 개최



안양불교대학(학장 현호·지장선원장)은 3월 11일 대학 강당에서 불교대학 제7기 기초반, 제5기 경전반 입학식을 개최했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현각 스님, 신입생 1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입학식에서 안양불교대학 현호 스님은 “밤낮으로 부처님 법을 갖고 닦아 잡다운 불자로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31)444-5935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운명적인 현상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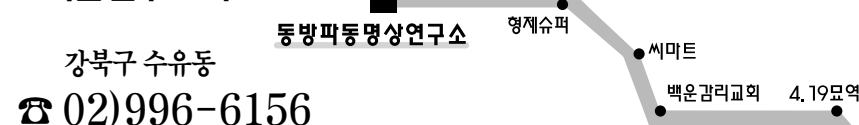
빙의에 대한 영혼적 현상들을 파동명상요법으로 해결해 내는 빙의 현상에 대한 필독서!

최영식 지음 | 인화출판사 값 9,500원

저자 법은 최영식은 세계 최초로 탁월한 수행 기법인 파동명상요법을 개발하여 2003년 12월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유괴살해임베정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그 외에는 전국에서 일어난 많은 강력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2003년 제 58회 경찰의 날을 맞아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그리고 영혼적 현상인 '빙의' 때문에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되찾게 해주는 오늘을 살아가는 상처 받은 영혼들의 진정한 안내자이다.

『현재 저자는 많은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파동명상 요법을 강의하고있다』 (다수의 영혼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 서울 연구소 약도



동방파동명상연구소

문의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Fax : 051)817-6157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파동명상 요법」을 수련하게 되면...

다가를 미래의 시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자 또한 두려움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의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운명을 읽어낸다는 사람들을 찾아가 자신들의 미래를 그려본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말을 듣고 믿는 시대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직접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경험하는 시대이다. 현생의 삶은 자신의 전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속에 예정되어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볼 수만 있다면 미래의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해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파동명상요법을 통하면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운명적 사건과 영혼적 사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역시(자연의식)를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 파동명상제령: 제주(祭主)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원격명상제령: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친도 할 수 있다.
◆ 영통靈通수련: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 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수련대상: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교재: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수련일시: 3월 둘째주, 넷째주 (화~금) ◆ 강의장소: 서울, 부산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 및, 전화문의 바람)
① 파동명상 전문반: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4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상담 후 결정